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음 2월 13일) 제20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시장 예비후보 경쟁 과열 종합경기장 개발 뜨거운 감자

김승수 현 시장, “문화관광도시” 내세워 문화공간 조성

이현웅·엄윤상 예비후보, 경제논리로 산업육성 공약 발표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2개월 앞두고 전주시장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이현웅, 엄윤상 두 예비후보는 현 김승수 전주시장을 겨냥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쟁점화하며 전주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2006년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전주시 송하진 시장 시절 전북도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무상양여하고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 대체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몰 등 종합경기장 개발을 승인한다는 합의를 했다. 또한 2010년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전주시 송하진 시장과의 합의가 전주

시 재정 부담 원인으로 민간 자본 유치 개발로 재합의 됐다. 그러나 2014년 송하진 시장이 전북도 지사가 되고 전주시 김승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갈등이 접화 됐다. 그 이유는 송하진 지사는 원칙을 주장하면서 김완주 지사와의 재합의 내용 이행을 촉구했고 반면 김승수 시장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 역사성·정체성 훼손,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의회 동의를 얻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현재 김승수 시장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경제에 미칠 영향과 종합경기장 부지의 역사성, 전주의 미래가치를 고려 가장 전주다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

라며 “전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문화를 앞세우며 국제포럼, 문화축제, 역사문화 등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가장 한국적인 전주도시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다. 김 시장은 전통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반면에 두 예비후보는 문화도시보다 경제논리로 컨벤션 및 테크노밸리 같은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현웅 예비후보는 “노후되어 위험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종합경기장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호남권의 최대 컨벤션 및 실내 테마파크형 복합쇼핑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엄윤상 예비후보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실리온밸리와 테크노밸리같은 전통문화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컬리티시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채규남 기자



28일 도청 점검실에서 열린 정규직 전환 임용장 교부행사에 송하진 도지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원들과 함께 임용장을 보여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기간제 및 용역근로자 총 20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설레이는 새출발... 새로운 다짐...

기간제·용역근로자 207명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결정

송 지사, 정규직 전환 공무원 직원들과 간담회서 “봉사자로서 일 해줄 것”

전북도 기간제 및 용역근로자 총 207명의 일자리가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결정돼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의 근로를 시작했다. 이들 207명의 공무원 전환은 이의 신청 접수와 재심, 개별면접 및 결격사유조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양대노동총연맹 한국노동총연맹과 민주노동총연맹까지 직접 참여시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7차례 심의를 거쳐 대상을 결정했다. 전북도는 이번엔 정규직 전환기준을 ‘연중 9개월 이상’인 정부 기준보다 ‘연중 8개월 이상’으로 완화했고 추가로 연중 7~8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7명의 일자리 중 60세 미만이 근로하는 일자리는 공무원 전환이 완료됐고,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일하는 일자리는 일정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보장

후에 이후 신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규 공무원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용장을 수여하며 정규직 전환 근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송 지사는 “정규직 전환 공무원은 이 전보다 더욱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A씨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정년이 보장되고 처우도 나았다는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전북도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유·무형 신규지정 문화재 지정서 교부

유형, 부안 내소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등 6건

무형, 목기장 박수태·전라삼현육각 전태준 등 5건

전북도는 27일, 전라북도 유무형 신규지정 문화재 11건에 대한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행사를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문화재 11건 중 도 지정 유형문화재는 총 6건으로 제255호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제256호 완주 수왕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제257호 정읍 무량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제258호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과 건칠관음보살입상이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제193호 석남역사와 문화재자료 제194호 순교약력과 종리원사부동화사이다. 무형문화재는 총 5건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1호 목기장 (복기) 박수

태, 제46호 전라삼현육각(대금) 전태준, 제62호 전주배침정(배침) 변경환, 제63호 전주기잡놀이, 제64호 여산 호산춘(호산춘) 이연호 등이다. 이번 지정되는 문화재는 유형의 경우 지난 2017년 하반기(9~10월)중 신청된 문화재로 현지조사(10~12월)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2018. 2월)를 거쳐 2018년 3월 9일 고시된 동산문화재이며, 무형은 2017년 3월 지정신청 이후 관련분야 전문가 5명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에 심의 가결된 문화재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전라북도는 호남이라는 틀 안에 묶여 제 몫을 찾지 못했지만 전북은 결코 호남의 일부가 아니고 전라도의 중심이

다”고 강조하며, “이제 전북 몫을 당당히 찾고 자존의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우리 고장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5면>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전라북도는 총894건(국가지정 263, 도지정 631)의 문화재가 지정되었으며, 작년 11월 전북가야 선포 이후 남원 유곡리 두라리 가야고분군이 호남 최초로 국가사적 제542호로 지정 되는 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추가하게 됐다. 도지정문화재도 부안 내소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등 19건이 추가지정하게 됐다. 노하기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전북 유형문화재 지정은 현재 조사 추진중인 극대역사문화자료와 주요 비지정문화재 335건, 전북가야 주요유적 등 더 많은 문화재를 지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군산서 정부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실시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GM) 공장까지 폐쇄가 예고된 전북 군산지역에 대한 정부의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실사가 28일 이뤄졌다. 앞서 군산시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각각 요청했다.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실사단을 꾸려 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와 자동차부품주행시험장, 근대역사문화지구, 지엠 군산공장, 창원금융, 현대중 군산조선소 등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군산시는 이번 조사단 현장실사에 이어 정부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산=김판근 기자

매일 INDEX

2면 - '박근혜정부 세월호 해명' 거침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